

5·18 40주년 문화로 만나다



오월미술을 집중 전시하는 '오월미술관'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맞은편에 문을 열었다. 5·18재단과 함께 진행하는 '그 곳에 우리가 있었다' 전.

“오월 민중미술 역사 축적하는 공간으로”

〈6〉범현이 관장 '오월미술관' 개관

전시장에서 만나는 송필용 작가의 1986년 작 '오월하살'(금남로)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다. 하늘에서 내려다 보는 시선으로 금남로 상황을 검은색·흰색을 써 드라마틱하게 잡아냈다. 30대 젊은 작가 박성완의 거친 질감이 인상적인 '광주전압군'(2019)이나 이준석 작가의 소박한 오월 판화 '오월춤'도 눈길을 끈다.

'오월 항쟁'의 바로 그 현장인 옛 전남도청 인근에 오월을 비롯, 민중미술을 전문적으로 전시하는 미술관이 문을 열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맞은편 건물 2층에 개관한 '오월미술관'(광주시 동구 문화전당로 29-1)이다.

관장은 소설가이자 전시비평가 범현이(58·예술문화연구회 대표)씨. 고 3시절 케터 콜비치의 '피에타'를 접한 후 '미술'이 주는 강렬한 감동을 느낀 범 관장은 민중미술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며 자료를 모으고 작가들을 만나왔다. 오래 전부터 오월 작품 관련 미술관을 열고 싶었고, 2020년 5월 그 꿈을 이루었다.

'삶이 고통스럽고 외로울 때 그림이 위로가 될 수 있다.' 100명 작가를 인터뷰한 범 관장의 책 '글이 된 그림들'의 한 구절이 적혀 있는 미술관은 80여평 규모로 전시공간과 수장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료실을 갖추고 있다.

"미술관을 오래 전부터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도청 인근을 중심으로 찾다보니 공간도 마땅치 않았고 임대료가 부담이었죠.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지인이 흔쾌히 공간을 내주면서 2월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미술관을 오픈하게 됐죠. 이름은 오월미술관과 오월민중미술관을 놓고 고민을 좀 했어요. 5월 항쟁에서 잉태된 게 오월미술이고, 흔히 민중미술 속에 오월미술이 속해 있는 느낌이 있어, 좀 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오월미술관으로 지었습니다. 물론 미술관은 오월을 중심으로 민중미술 전반에 걸친 작품을 전시할 예정입니다."



오월미술관 범현이 관장.

5월 현장 '옛 전남도청' 인근에 오픈
5·18재단과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 전
80평 공간 "전국적 교류 장소 됐으면"

범 관장은 무엇보다도 '오월'의 바로 그 현장이었던 '옛 전남도청' 앞에 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게 뿌듯하다고 했다.

5·18기념재단은 범 관장이 대표로 있는 예술문화연구회와 함께 '오월민중미술아카이브 사업'을 3년간 진행했고 5·18 40주년을 맞아 미술작품 200여점과 기록물 200여점 등을 전시하는 2개의 굵직한 특별전(6월 16일)을 열고 있다. 5·18기념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검은 하늘, 붉은 눈물'전과 오월미술관에서 열리는 '그곳에 우리가 있었다'전이다.

"기법센터에 오월 항쟁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판화 중심 등의 작품과 각종 아카이브 자료들이 전시돼 있다면 오월미술관에서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오월 관련 작품들을 전시중입니다. 광주 항쟁과 광주 정신을 잇는 작업은 현재도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죠."

전시회에는 이사범·박태규·하성흡·이기원·김광

례·최요안·정영창·김상집·박기태·최진우 등 12명의 작가 작품이 전시됐으며 오월미술운동 자료들도 만날 수 있다.

조선대 미술대학을 졸업한 범 관장은 수십 년간 민중미술 작품을 모았고 자료 수집에도 열심이였다.

"인터뷰를 위해 작가들의 작업실을 방문할 때면 가장 먼저 책장을 들여다 봐요. 작가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고, 무엇보다 어떤 자료를 갖고 있는 지 살펴보는 거죠. 수년동안 민중미술 관련 수집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아니까 웬지 안주면 안될 것 같은 생각들을 하나봐요. (웃음). 지금 아니면 그 사람들, 그 작품들을 기록할 시간이 없어요. 민중미술작가들은 자신의 작품이 시대가 만들어낸 공공의 것이고 삶의 힘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는 생각이 강해 전면에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은 자신이 빛나고자 하지 않죠. 그런 이들을 발굴하고 그들의 작품을 조명하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간 5·18재단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아카이빙 자료 수집은 탄력을 받았다. 전시실 중앙 커다란 탁자 위에 놓인 컴퓨터에는 용역사업결과물들이 스캔돼 들어 있다. 작품사진을 비롯해 팸플릿, 논문, 신문기사 등으로 원하는 사람 누구나 바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민중미술의 역사를 축적하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번 미술관 개관으로 늘 마음 속에 지고 있던 빛을 조금이나마 갚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월 미술관이 오월미술 뿐 아니라 민중미술의 전국적 교류 장소가 됐으면 합니다. 부마항쟁, 4·3항쟁 관련 그림들을 이곳에 전시하고 오월 작품을 그쪽 미술관으로 보내는 등 서로 공유하고 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범 관장은 신문문예를 통해 등단한 소설가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는 남농 허건의 삶을 다룬 '목포의 일우'로 목포문학상을 수상했으며 올해 9월에는 '미술'을 소재로 한 단편을 묶은 소설집도 펴낼 예정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

5·18 열흘간의 이야기 '나는 광주에 없었다'

40주년 기념 창·제작 공연, 13~18일 ACC 예술극장

"1980년 5월, 우리는 광주에 없었습니다.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광주는 차단되고 격리된 섬이었습니다. 완전한 고립 속에서도 의지를 굽히지 않고 민주화를 위해 싸운 숭고한 용기와 희생으로 이 땅에 자유와 민주주의가 자리잡을 수 있었습니다."(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 중)

12일 오후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예술극장에서 5·18 40돌 기념 창·제작 공연 '나는 광주에 없었다' 언론 리허설이 열렸다.

'나는 광주에 없었다'는 열흘간의 5·18민주화운동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재현한 작품으로 관객이 공연에 직접 참여해 광주의 역사와 작품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게 한 관객 참여형 공연이다.

이날 관객들은 무대와 관객석의 경계가 없는 공연장에서 박스로 된 의자에 앉아 공연을 관람했으며 직접 시민군이 되어 극 중간중간 '독재타도, 계엄철폐, 민주평화' 등을 연기자들과 함께 외쳤다. 관객들은 또 극중 연극자들이 배포한 '투사회보'를 낭독하고, '빛속의여인', '남행열차' 등의 노래를 부르기도 하면서 작품에 참여했다. 특히 드라마와 연극무대에서 활발히 활동중인 배우 황영희가 등장에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구사하면서 관객들

을 무대로 이끌어냈다.

작품은 또 친구와 함께 금남로로 나선 '조대부고 남학생', 부산에서 왔다가 미처 광주를 탈출하지 못하고 시민군이 된 '부산 여대생'을 비롯해 저마다의 이유로 항쟁에 참여한 '행집 아저씨', '계림동 주민' 등 시민 개개인의 이야기를 통해 80년 5월을 보여준다.

ACC는 앞서 지난해 시범공연을 관람한 관객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내용과 무대장치 등을 보완했다. 객석에서 중계 화면을 볼 수 있는 LED 모니터를 확장했고 간이 객석을 제작했으며 관객이 공연에 참여하는 장면을 추가해 무대와 객석의 경계를 허물고 공연의 몰입도를 극대화했다. 이번 공연 연출은 2018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폐막식 연출을 맡았던 고선웅이 맡았고 극감독조 마방진 등 배우 34명이 출연한다.

공연은 13~15일 오후 7시 30분, 16~18일 오후 3시 예술극장1에서 열리며 관람료는 4만원(광주시민 50%할인, 5·18 유공자 1인 2매 무료)이다. 14세 이상 입장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두기 객석제를 운영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ACC가 선보이는 관객 참여형 연극 '나는 광주에 없었다'가 13~15일 오후 7시 30분, 16~18일 오후 3시 예술극장1에서 열린다. 사진은 프레스 오픈 현장 모습.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하늘·땅·태양·신' 제13회 광주비엔날레 포스터 발표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김선정)가 '떠오르는 마음, 맞이하는 영혼'(Minds Rising, Spirits Tuning)을 주제로 열리는 제13회 광주비엔날레 EIP(Event Identity Program)를 12일 발표했다.

공식 포스터는 인간 지성의 전 영역을 아우르며 마음과 영혼을 확장하면서 기존 체계와 규범의 이분법에 대한 도전과 예술적 실천을 형상화했다. 포스터의 중심을 차지한 그래픽 모티브는 수많은 지성과 개념들이 유연하게 중첩되는 생명체로 에너지가 넘치는 색 체계는 하늘, 땅, 태양, 산을 의미한다. 또 주요 심볼인 '눈'은 그래픽 모티브와 어우러져 생명력을 부여한다. 기하학적인 조형성이 돋보이는 '눈'은 지성을 감각할 수 있는 기관인 것이다. 시그니처는 광주비엔날레 주제의 도전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 부리플 서체인 평균 서체와 버



틀러 스텐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다.

EIP는 젊은 디자이너 그룹 콜렉티브워크스(WORKS)이 하림, 이연정씨가 개발했다.

한편 제13회 광주비엔날레는 코로나 19 여파로 당초 예정보

다 6개월 늦춰진 내년 2월 개막할 예정이다. /김미은 기자 mekim@

SINCE 1982

한국, 미국, 독일, 캐나다, 덴마크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2015~2019 대한민국수소배터리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CES INNOVATION AWARDS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수상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

프로야구단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t'way**